

부모소명 개념에 대한 부와 모의 인식 차이: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한 시각적 비교*

김 수 진	손 영 우	이 수 란†
연세대학교 심리과학이노베이션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사이버대학교 군경상담학과

본 연구는 한국 부모가 부모소명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부모소명이 어떠한 개념과 연결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부모소명 인식에 관한 네트워크를 추출하여,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유의하게 큰 네트워크와 밀도를 보여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많은 부모소명 개념을 사용하여 부모됨과 자녀 양육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들은 책임감, 자녀성장, 방향성, 헌신, 부모의 인간적 자질을 부모소명과 직접 연결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여기에 더해 정체감, 부모성장을 연결했고, 아버지의 경우 부모 공통 개념에서 방향성이 빠져 총 4개의 개념만을 부모소명과 직접 연결했다. 이는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부모로서 정체성과 같은 본질적인 자기 개념과 성장의 주제를 부모소명에 연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념 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연결중앙성에서는 부모 공통으로 책임감, 자녀성장, 방향성, 헌신 순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경우 자녀성장, 책임감, 헌신 순으로, 어머니의 경우 책임감, 부모성장, 정체감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개념으로 평가되었다.

주요어 : 소명, 부모소명, 남녀 차, 사회연결망 분석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교신저자 : 이수란, 서울사이버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강북구 술매로 49길 60

E-mail: suranlee@iscu.ac.kr



Copyright ©2022, Korean Association of Coaching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우리나라는 불과 반세기 만에 전통적인 사회에서 근대사회를 이루었고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이다. 가족에 대한 가치도 이를 피할 수 없어 자식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던 한국 부모들의 인식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자신을 ‘희생’하여 자식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은 이전에 비해 열어지고 있다(은기수, 2004). 반면에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과 부모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데, 단순히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을 주요 부모 역할로 생각했던 전통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요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자녀의 적응적 인간관계(한병래, 방은령, 2017)나 자녀의 진로 개발(김소라, 문승태, 2017), 심리적 적응(강시은, 2017), 학업 성취(박영신 외, 2004)까지 모두 부모의 역할로 인식되어 이러한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해내는가가 좋고 능력 있는 부모의 지표가 되었다. 여전히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지원하며 경제적, 정신적으로 희생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희생이 반드시 좋은 부모 역할의 전부는 아님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가 어떠한 태도와 역할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자녀 양육에 대해 부모가 가진 태도를 소명(calling)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소명은 주로 직업에 대한 개인의 태도로 간주되어왔고, 소명 연구 역시 ‘소명으로서의 직업’이 개인에게 갖는 의미, 충족감, 직업윤리, 업무 태도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자신의 일을 소명이라고 인식하는 개인이 일할 때나 조직 내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결과를 경험하는지 등이 주

로 연구되어 왔다(Duffy & Dik, 2013).

그렇지만 많은 소명 이론가들은 소명이 직업 영역 외에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삶의 다른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Baumeister, 1991; Dik & Duffy, 2009; Dobrow & Tosti-Kharas, 2011; Super, 1980). 특히, Dobrow 등(2011)은 소명을 “특정 분야에 대한 의미 있는 열정”으로 정의하면서 소명을 직업 영역 이외 다른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을 마련하였다. 이후 Coulson et al.(2012a)는 소명을 부모와 자녀 양육에 적용하여 자녀 양육의 영역에서 부모소명을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척도를 개발하여 실증적인 연구기반을 제공하였다.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일반 성인들이 생각하는 부모소명 개념을 질적 연구를 통해 도출한 바 있고(김수진 외, 2022), Coulson et al.(2012b)의 척도를 바탕으로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를 개발하는 등(이수란 외, 2021)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부모로서의 역할이나 그 중요성에 관한 연구는 부모소명 연구 이전에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한 롤모델 부재(김미경 외, 2016), 가치관의 변화(문무경 외, 2016) 등은 자녀 양육과 부모 역할에 많은 고민을 안긴다. 그만큼 자녀 양육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부모가 자녀에 대해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지 연구하거나(윤미라, 2006) 부모됨(parenthood)이라는 개념으로 부모 역할 수행의 동기를 살펴보거나(유안진, 김연진, 1997) 자녀 양육 태도에 관해 연구한 것이 대표적이다(현정환, 2007). 부모소명과 개념적으로 가장 비슷한 것은 부모됨인데, 부모됨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부모됨의

의미, 부모됨의 동기를 밝히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부모됨의 의미와 동기에 대해 고찰한 유계숙, 정현숙(2002)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됨의 의미로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시민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성인이라는 정체성의 표현, 도덕적인 의무, 결혼생활의 유지 및 관계 향상 등이 언급되었다. 부모됨의 동기는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구분되는데, 주로 긍정적 동기(영속성의 추구, 출산과정의 경험, 자신의 아동기에 대한 기억 및 재경험, 양육을 통한 역할 수행, 파트너와의 유대감, 성역할 수행 등)와 부정적 동기(비관적인 세계관, 임신의 불편함, 인구문제에 대한 우려,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로 구분하여 어떤 동기를 갖는 것이 자녀 출산 및 양육에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부모소명이 부모됨, 양육 태도 등과 차별화되는 개념이라는 점은 선행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이수란 등(2021)의 연구에서 부모소명은 부모됨이나 양육과 관련된 다른 변인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지표(예: 양육 스트레스)를 예측하는 등 다른 변인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보였는데, 이는 부모소명이 부모가 된 이후의 삶까지 아우르는 개념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부모소명이라는 개념이 국내에서는 매우 최근에 연구되기 시작하여 부모소명이 갖는 독특한 의미나 다른 개념들과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갖는지 등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소명의 한국적 의미와 개념을 탐색한 김수진 등(2022)의 연구에서 추출된 부모소명 관련 개념들을 부와 모가 어떻게 개념적으로 표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각적 비교가 가능한 사

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을 실시했는데, 이 분석은 사회연결망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결망과 사회 구조 등을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이다(Scott, 2011). 주로 사회학에서 어떤 형태나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사회 구조, 연결망, 관계성, 그룹 또는 개인의 속성을 파악하고자 할 때 사용되었는데, 개인의 지식에 대한 구조적인 표상을 만들어 내기에도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Cooke et al., 1986). 그러므로, 이를 통해 부모소명이라는 개념적 표상의 구조나 연결망 형태를 파악하고 시각화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소명에 대한 인식을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한다.

직업 영역에서 소명의 성차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데, 직종에 따른 변화가 심하여(Hagmaier & Abele, 2012) 일반적인 결과를 얻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소명에 대한 주요 관심사가 일의 영역에서 소명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에 있었기 때문이다(Duffy et al., 2013). 다만 직장 내 여성 소명 연구에서 남성보다 어려움을 겪는 여성은 자신의 일을 이상적으로 수용하여 초월적 부르심과 사회 공헌에 더 의미를 두거나(Lazar et al., 2016), 외부의 압박과 부정적인 상황을 겪을수록 소명에 대해 정서적 의미를 더 크게 부여한다는 연구가 있다(Afiouni & Karam, 2019). 이보다 선행하여 Phillips(2009)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명의 인식 차이 연구에서 남성은 실용적, 인지적인 관점으로 여성은 자존감과 연결된 정서적 관점에서 직업소명감을 해석한다는 실증적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남성과 여성 모두 직업소명에 대한 목적 지향적인 관점은 동일하지만 여성은 지지적인 환경을 통해 소명에 대한 인식을 발달시킨다고 하였다. 직업소명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가 부모소명에서의 인식 차이와 동일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선행연구를 통해 소명에 대해서 남녀가 다른 인식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많은 부모됨과 자녀 양육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부와 모가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부모 연구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 한쪽만을 연구하면서 부와 모를 한 연구에서 비교하는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특히, 자녀 양육에 있어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아버지 자신도 자녀 양육에 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어머니의 역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양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영향이 막연히 비슷할 것이라는 전제가 지배적이다(나중혜, 2005).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부모소명의 인식 차이 확인을 위한 도식 비교연구를 통하여, 국내에서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모소명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소명 인식 차이에서 오는 부와 모의 양육 목적과 행동을 동시에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부모 공동의 과업이지만, 부와 모가 각각 부모가 되는 것 혹은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의미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부모로서의 역할 갈등, 양육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부모소명에 있어 남녀차이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부모로서 자기 이해와 공동양육의 상호 이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소명

본래 종교적 개념이었던 소명은 종교에서 학문으로 넘어오면서 정의에도 변화가 있었다. 고전적 소명의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신의 부르심과 명령, 계획은 현대에 와서 초월적인 부름(Dik et al., 2009)이나 내적 성찰(Dobrow, 2006)로 대체되었고, 이후 종교성을 완전히 벗어나고 개인이 자신의 일에서 가치를 경험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 역시 소명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학문으로서 소명의 개념은 Bellah et al.(1985)이 제안하고 뒤이어 Wrzesniewski et al.(1997)에 의해 본격적으로 연구되었다. 이들은 직업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일(job), 경력(career), 소명(calling)으로 구분하였고, 이 중 소명은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개인에게 충만한 기쁨이나 인생의 주요한 긍정적 영역으로서 단순히 성공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넘어선 깊은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태도라고 하였다.

Dik 등(2009)은 소명을 “목적이나 의미를 위한 특정한 삶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리고 타인 지향적인 가치와 목표를 주요 동기로 삼는 자신을 넘어서는 초월적 부르심”이라고 정의 내렸는데, 이들은 소명을 반드시 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영역에서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Dobrow et al.(2011)은 소명을 “특정 분야에 대한 의미 있는 열정”으로 정의하며 기존 소명의 정의가 포함하고 있던 종교성에서 완전히 벗어나 직업 외로 소명의 영역을 확장했다. 연구자들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높은 열정과 헌신을 요구하기에 소명의식을 적용하기 매우 적합한 영역이라 언급하기도 하였다(Baumeister, 1991; Seligman, 2002).

우리 사회가 인식하고 기대하고 있는 부모의 역할은 앞선 소명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우리 사회는 자녀 양육에 있어 부모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히 여긴다.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의 생성에 부모의 일차적 책임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성장한 자녀의 사회적 적응과 성공을 위해서도 부모는 끊임없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부분의 부모는 양육을 통해 의미를 추구하고 책임과 헌신을 다하는 등 소명의 개념과 일치하는 수행을 일생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이다.

Coulson 등(2012a)은 '특정 영역에 대한 의미 있는 열정'이라는 Dobrow의 관점에서 기존의 일 위주로 개념이 발전되고 연구가 축적되어 온 소명을 부모됨과 자녀 양육의 영역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질적 연구를 통해 일상적 육아의 관점에서 소명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주제들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정체성(identity), 희생(sacrifice), 의미 있는 공헌(meaningful contribution), 열정(passion), 운명(need/destiny), 항상 생각함(always on the mind/engulfs the consciousness)이라는 총 6개의 소명 요소를 특정하였다. 이후, Coulson 등(2012b)은 질적 연구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인생의 목적(life purpose), 인식(awareness), 열정(passion)이라는 세 개의 구인을 가진 자녀 양육 주관적 소명 척도(Subjective Sense of Calling in Childrearing Scale; SSCCS)를 개발하였다. 각 구성 영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생의 목적은 부모됨이 존재의 이유(raison d'être)이면서 이러한 역할에 만족하고 있고 자녀 양육을 통해 목적과 의미뿐만 아니라 운명임을 경험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식의 경우 자녀 양육 역할에 마음을 다해 집중하고 자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언제나 각성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열정'은 자녀 양육과 관련 영역에 높은 동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부모소명은 부모로 사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며 양육을 통해 의미를 추구하고 부모로서의 삶에 열정을 갖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수진 등(2022)은 우리나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일반 성인들이 생각하는 부모소명과 이들이 자녀 양육에 있어 인식하는 소명의 개념에 대한 주제분석 연구를 통해 '부모의 인품과 자질', '부모로서의 정체감', '운명과 책임', '신념과 방향성', '열정과 헌신', '부모와 자녀의 의미 있는 성장'이라는 6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표 2). 연구에서 도출된 주제들은 서구의 부모소명 연구의 주제들과 거의 일치하였으나, 우리나라 부모들만의 독특한 인식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소명의 신고전적(neo-classical) 관점에서 강조되는 '부르심'이나 '외부적 원천'(Dik et al., 2009, Bunderson & Thompson, 2009)에 대한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대신 기존 서구의 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개념(부모의 인품과 자질, 부모와 자녀의 의미 있는 성장)과 기존 개념과 일치하지만 의미가 다소 다른 주제(운명과 책임)도 도출되었다. 또한, 연구에서 도출된 주제들을 통해 우리나라 부모들은 부모소명에 대해 바람직한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 자신의 내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부모 스스로 의미 있는 성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Coulson et al.(2012a)과 김수진 등(2022)의 두 연구를 통해 부모소명이 기존의 직업소명과

유사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초기 소명 개념인 종교적이고 초월적인 의무보다는 의미의 강조가 두드러지는데, 소명이 올바른 일(good work)에서 의미 있는 일(meaningful work)로 개념이 바뀌는 것과 같이 자녀 양육 역시 전통적인 세대 유지나 양육의 의무에서 개인에게 의미 있는 행위로 관점이 바뀌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육과 부모됨에 대한 남녀의 인식차

전통적으로 우리 문화에서는 아버지는 친하지만 엄하고 어머니는 자비로운 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보았고, 이러한 역할이 오랜 기간 한국 사회의 양육 행동 원리로 받아들여졌다(정옥분 외, 1997). 그러나 산업화를 거치며 전통적인 가족 구조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역할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통적인 확대 가족에서 부모의 역할이나 자녀 양육이 세대를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제 부모들은 자녀 양육과 부모 역할을 스스로 해야 한다. 남성은 사회적으로 여전히 집안의 가장이면서 자녀 양육에 관여해야 하지만 자녀의 교육에서 소외된 경우가 많고, 어머니는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가정에서의 역할을 이중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지지만, 여전히 육아는 여성이 주체가 되어 주도하는 것이 현실이며 사회적 기대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6년에 우리나라 유배우자 가족의 44.9%가 맞벌이 가구인 것에 반해, 2020년에 이르러서도 가사 분담은 70% 이상 여성이 전적으로 책임 혹은 주로 분담하고 있다. 물론 남성도 변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남성의 육아휴직은 전년도보다 23% 증가했다.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던 전통적인 부모의 모습과 자녀 양육의 지식과 지혜는 가족과 사회 구조의 변화에 단절되고,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 새로운 역할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아버지의 육아 참여는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Capuozzo et al., 2010), 자아효능감이나 내적 통제 능력(Pleck & Masciadrelli, 2004) 그리고 사회화(Carr & Springer, 2010)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버지의 양육에 관한 연구는 아버지의 육아 참여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자녀 성장의 긍정적인 면과 함께 아버지의 육아 경험과 육아 참여를 위한 조건이나 모델의 제공, 혹은 아버지 육아 참여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보는 것이 주를 이룬다(e.g., Dollahite et al., 1997; Goldberg, 2014; Palkovitz, 1997; Parke, 2002). 국내 연구에서는 특히 바람직한 아버지상과 관련하여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에 대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안수미, 2013), 정서적 지원자로서 역할을 기대하거나(김낙홍, 2010) 생활의 모델이 되는 아버지(한경혜, 1995) 등 바람직한 아버지상과 관련된 인식에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아버지가 생계부양자의 역할에서 자녀 양육자라는 역할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으며 나아가 자녀 양육에 있어 아버지만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한 요구가 많이 늘어나고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하는 남성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버지 양육 참여 시간은 어머니와 비교하면 훨씬 적다(Finley et al., 2008; song, 2011). 여전히 여성에게 육아는 가장 중심적인 활동으로 육아에 투여되는 시간과 에너지가 줄어들수록 죄책감을

경험하게 된다(Haddock & Bowling, 2002). 그러나 남성의 경우 육아로 인해 제약과 죄책감이 아닌 자신들이 참여하고 싶을 때 참여하는 일종의 권한으로 생각한다(Pederson, 2012). 2019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출생아 부모의 육아 휴직 사용률은 모 63.6% 부 1.8%로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어머니의 경우 자녀를 돌보며 가정을 관리하며 자신의 여가를 갖는 모든 시간이 혼재되어있다(Larson et al., 1997). 청소를 하면서도 자녀를 돌보고 잠깐 쉬는 사이에도 자녀와 함께 있게 되는 것과 같이, 자녀 양육 활동과 생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까지 모두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반면 남성의 경우 자녀 돌봄의 시간은 주로 놀이에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다(안수미, 2013). 양육 시간의 측면에서 부모의 양육을 비교하면, 어머니는 매일의 반복적이고 비사회적인 의무의 자녀 양육을 하는 반면 아버지에게 양육은 선택의 결과인 것이다(이승미, 2007).

이미 많은 부모됨과 자녀 양육 연구를 통해 부와 모가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부와 모가 보이는 다른 행동은 부와 모의 부모소명에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었거나 동시에 부모소명에 대한 인식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다.

사회연결망분석

사회연결망 분석이란 사회연결망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결망과 사회 구조 등을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Scott, 2011), 기본적으로 다수의 점과 이들을 연결하는 선으로 구성된 망을 사회과학적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이다(허명희, 2012). 이 분석은 주로 사회

학에서 하나 이상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어떤 형태나 패턴을 분석함으로써(전진태 외, 2010) 사회 구조, 연결망, 관계성, 그룹 또는 개인의 속성을 파악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최근에는 언론학, 행정학, 경영학은 물론이고 자연 과학 영역까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김용학, 2007; 김성희, 장로사, 2010), 심리학 분야에서도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멘탈 모델을 추출하고 특성을 비교하거나(황신웅, 2005)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가진 고정 관념과 실제 평가의 차이를 파악하는 연구(조지선 외, 2013)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정은경과 손영우(2011)는 진보와 보수라는 두 집단의 도덕적 표상의 차이를 사회연결망을 통해 분석하여 이들의 가치 판단의 근거가 되는 도식을 규명하여 서로 다른 두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차이점과 특성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처럼 사회연결망 분석을 바탕으로 언어를 분석하여 특정 이론에 대한 개념 구조에 관한 정신 모형을 구축하고 특성을 비교하거나(이준기, 하민수, 2012) 특성이 다른 두 집단이 같은 현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등을 기존의 개별적인 속성이 아닌 분석 단위 사이의 상호작용 즉, 관계 변수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인터뷰로 도출된 부모소명 관련 개념들을 각각의 특성이 아닌 이 개념들이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하여 부와 모가 어떻게 다르게 표상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이를 시각화하여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부모소명에 대한 부와 모의 개념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 거주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한국인 부모를 자료 수집 업체를 통해 모집하였다. 일반적인 부모의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자녀를 키우고 있는 기혼 상태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미혼이나 이혼, 별거 상태의 부모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참가 기준을 만족시킨 참가자는 총 92명으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79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아 윤리적 기준에 따라 진행(IRB No. 7001988-202204-HR1239-05)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자료 수집 업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문 참여에 대한 보상을 지급받았다.

도식 비교를 위한 사회연결망 분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표본 수에 대한 기준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체로 30~40명의 연구 참여자를 보고하였다(정은경, 2016; 정은경 외, 2011).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에 준하는 표본을 모집했으며, 아버지 39명과 어머니 40명, 총 79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부모소명개념

본 연구에서는 부모소명이라는 개념적 표상의 구조나 연결망 형태를 파악하고 시각화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소명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연결망 분석의 가장 첫 단계인 주제어 설정은 김수진 등(2022)의 선행연구에서 실시된 부모소명의 한국적 의미와 개념 탐색 연구에서 제시된 6개의 개념과 각 개념에 대한 인터뷰 자료를 이용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주요 개념은 주제분석 방법에 따라 도출되었는데, 3인의 연구자들이 각각 전사된 인터뷰자료를 정독하고 포괄적으로 이해한 후, 연구자들이 모여 주제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진술에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 단위(meaning unit) 분석(Rennie, 2000)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인 질적 연구에서는 의미 단위에서 공통적으로 연관되는 패턴을 발견하여 하위주제로 범주를 구분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단어는 의미 단위 분석에서 도출된 주요 단어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소명이라는 중심이 되는 주제어와 함께 추출된 6개의 개념에서 각각 2개의 제시어를 다시 추출하여 합쳐 13개의 주요 단어를 구성하였다(표 2). 개념 안에 2개의 주제어가 포함된 '신념과 방향성', '열정과 헌신'은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부모	연령	교육수준				종교유무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유	무
아버지(N=39)	45.00세(6.312)	.	2.6%	84.6%	12.8%	48.7%	51.3%
어머니(N=40)	39.15세(5.659)	10.0%	27.5%	55.0%	7.5%	57.5%	42.5%

표 2. 부모소명 개념에 근거한 사회연결망분석 주제어

중심단어	중심개념	하위개념	주제어
부모소명	부모의 인품과 자질	자녀를 양육하는데 기본적인 인간적 자질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롤모델로서 부모 기본적으로 자녀를 존중할 수 있는 태도	부모의 인간적 자질 롤모델
	부모로서의 정체감	존재의 의미가 자녀에게 있음 부모라는 것에 초점 정체감 중에 가장 중요	부모로서의 정체감 존재의 의미
	운명과 책임	나에게 올 아이 운명이라는 의미를 부여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 책임부터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까지	책임감 운명
	신념과 방향성	목적의식을 가지고 양육함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일반적인 가치관이 투영됨 부모 개인이 가진 특정한 가치관 투영되기도 함	신념 방향성
	열정과 헌신	양육을 하며 경험하는 긍정적 감정 항상 몰입함 어떤 상황에서도 희생하고 헌신함	열정 헌신
	부모와 자녀의 의미 있는 성장	자녀 양육을 위해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변화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자녀	부모의 성장 자녀의 성장

각각 신념, 방향성, 열정, 헌신의 주제어가 되고 단일 단어로 이루어진 개념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중심 주제어를 도출해낸 하위개념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 소명의 구성요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들을 비교하여 연구자 외에 선행연구를 수행한 심리학 박사 1인과 석사 졸업자 1명이 참가하여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참고한 인터뷰 자료는 부모소명과 관련하여 더이상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인터뷰를 실시한 후 그 자료를 분석한 것이기에 도출된 개념들이 부모소명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참여자는 하나의 개념이 나머지 개념들과 빠짐없이 한 번씩 짝 지워진 문항의 관계

를 8점 척도로 평가하게 되므로 총 78문항 (13X12/2)이 제시되었다. 두 개념 간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0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7점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중심어인 부모소명과 부모로서의 정체감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7점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0점으로 대답할 수 있다. 답을 마친 후 간단한 인구통계학적 질문에 응답하게 하였다.

분석 방법

참여자들은 부모소명이라는 중심 개념을 포함한 13개의 개념 각각에 대해 나머지 12개의

개념을 짝을 지어 그 관계를 평가하므로, 각 참여자 한 사람에 대해 개념 간의 관계 유무에 대한 매트릭스가 생성되는데, 이는 다시 부와 모라는 집단에 속해져 평균값을 구해 각각의 매트릭스가 산출된 자료를 가지고 연결망 분석을 실시한다(황신웅, 2005). 사회연결망 분석을 위해 NetMiner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NetMiner를 비롯한 사회연결망 프로그램은 0 이상의 수치를 가진 연결을 모두 표시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결망의 보다 명확한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0~7점의 총 8점 리커트 형식으로 제시하였고 연결망의 명확한 구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5.5점 이상인 관계들을 자료에 반영하였다(이선아, 2009; 황신웅, 2005). 그리고, 개념×개념의 관계인 1모드로 구성하여 개념 간에 연관이 있으면 1로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표시하였다. 본 연구는 부모소명에 대한 개념적 표상의 구조 및 연결망 형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회연결망의 다양한 분석지표 중 전체 연결망에 대한 연결 크기 및 밀도, 연결중심성을 분석지표로 사용하였다.

집단(부와 모)의 전체 네트워크 비교는 네트워크의 밀도(density)를 평가하는 것으로 각 결점의 전반적인 연결 정도를 의미한다. 밀도가 높으면 각 결점이 더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고 반대의 경우 결점 간의 연결이 느슨하게 구성되어 네트워크의 전역적(global) 특성을 보여준다. 또한, 시각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특정 결점이 다른 결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중양성(centrality)은 네트워크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로 각 결점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홍세희 외, 2019). 각각의 결점이 네트워크 안에서 얼마나 중앙에 있는

지 보여주는데, 관계적 측면에서 더 의미가 있는 연결중양성(degree centrality)과 연결망 내 다른 점들의 사이 위치를 측정하는 사이중양성(between centrality), 다른 점과의 거리의 합이 가장 작은 근접중양성(closeness centrality) 등이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항목의 연결수에 대한 비율이 높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요인 중 상대적으로 중요한 결점으로 영향력을 보여주는 연결중양성을 활용하여 부와 모가 상대적으로 부모소명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는 개념을 추출하였다.

결 과

전체 네트워크 비교

다음 그림에는 질적 연구를 통해 도출된 부모소명 개념들에 대한 부모 공통 네트워크(그림 1)와 아버지 부모소명 인식 네트워크(그림 2), 어머니 부모소명 인식 네트워크(그림 3)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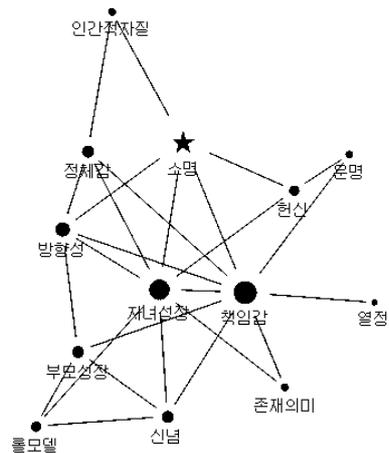


그림 1. 부모 공통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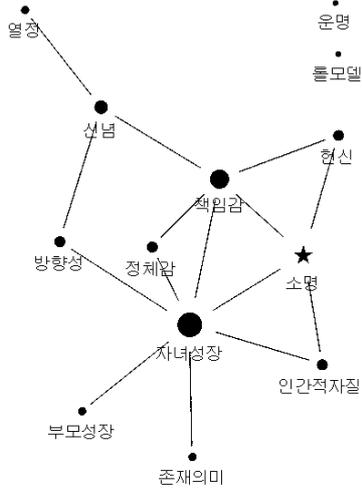


그림 2. 아버지 전체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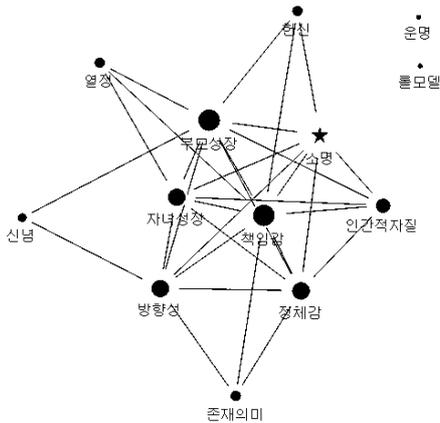


그림 3. 어머니 전체 네트워크

념들이 실제로 부모소명과 연결되는 개념인지 살펴보기 위해 부모 공통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부와 모를 전부 포함하고 있는 부모 공통 네트워크에서 ‘부모소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개념은 5개로 책임감, 자녀성장, 방향성, 현신, 인간적 자질로 나타났다. 나머지 개념 역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한 부 네트워크에서 ‘부모소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개념은 4개(자녀

성장, 책임감, 현신, 인간적 자질)인 반면, 모 네트워크에서 ‘부모소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개념은 7개(책임감, 정체감, 부모성장, 자녀성장, 방향성, 현신, 인간적 자질)로 나타나 어머니의 부모소명 개념이 보다 포괄적임을 알 수 있었다. 네트워크 분석에서 개념들이 직접 연결된다는 것은 연구 참여자들이 선으로 이어진 두 개념을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평가했음을 의미한다. 반면, 선으로 연결되지 않은 개념은 참여자들이 해당 개념을 직접 관련되었다고 평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부 네트워크에서 자녀성장과 책임감은 부모소명과 관련 있다고 평가함은 물론 두 개념 간에도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는 반면, 운명과 롤모델은 부모소명과 관련된 어떤 개념과도 직접적으로는 연결시키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아버지들은 부모소명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자녀성장과 책임감 등의 개념은 자연스럽게 떠올리지만 부모소명과 함께 운명이나 롤모델이라는 개념을 떠올리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부모 공통 네트워크에서의 밀집도는 0.33, 부 네트워크의 밀집도는 0.19, 모 네트워크의 밀집도는 0.40으로 모 네트워크에서의 밀집도가 부에 비해 높게 나타나 어머니가 인식하는 부모소명의 개념 간 연결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4)=2.38, p < .05$).

구체적으로 보면, 부와 모 네트워크에서 공통으로 부모소명과 관련이 있는 개념은 책임감, 자녀의 성장, 부모의 인간적 자질, 현신으로 나타났다. 부 네트워크에서는 부모소명과 연결되었으나 모 네트워크에서 연결되지 않은 개념은 없었고, 반대로 모 네트워크에서는 부모소명과 연결되었으나 부 네트워크에서는 연결되지 않은 개념으로 부모로서의 정체감, 부

모의 성장, 방향성이 있었다. 운명과 롤모델은 부모 공통 네트워크에서는 간접적인 연결을 보였지만 부와 모 각각의 네트워크에서 연결되지 않는 개념이었다. 정리하면, 아버지는 부모로서의 소명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부모의 자질에 대해 고민하며 자녀를 성장시키는데 헌신하는 것을 연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어머니는 책임감을 가지고 부모의 자질에 대해 고민하며 자녀를 성장시키는데 헌신하는 것에 더하여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부모로서의 정체성과 부모로서 자신의 성장과 같은 조금 더 본질적인 자기 개념과 성장을 부모로서의 소명에 연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결중앙성 비교

연결중앙성은 하나의 개념이 다른 개념들과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결점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내에서 영향력이 높은 개념일수록 중앙에 위치하게 되며, 방향과 관계없이 원 중심과 개념 사이의 거리로만 영향력을 평가하게 된다. 그림 4, 5, 6은 각 개념을 일직선상에 배열하는 경우 서로 겹치게 되므로 원 안에 여러 방향으로 개념을 배치하였다. 먼저, 그림 4의 부와 모를 전부 포함하고 있는 부모 전체 연결중앙성을 살펴보면 책임감, 자녀성장, 방향성, 신념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부모 공통으로 책임감이 부모소명의 가장 중요한 개념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녀성장 역시 부모소명의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의 성장 외에 자녀 양육을 통해 일어나는 부모의 성장 역시 중요한 중심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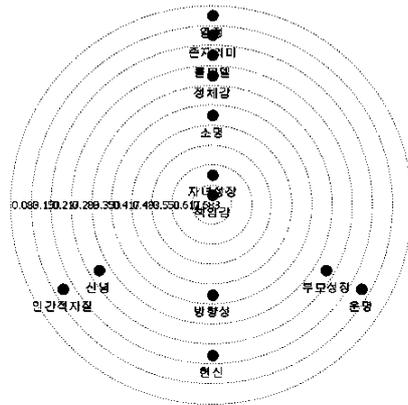


그림 4. 부모 전체 연결중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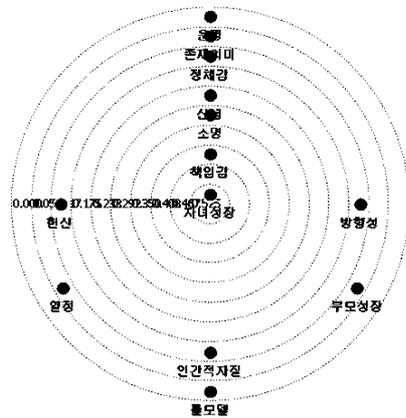


그림 5. 아버지 연결중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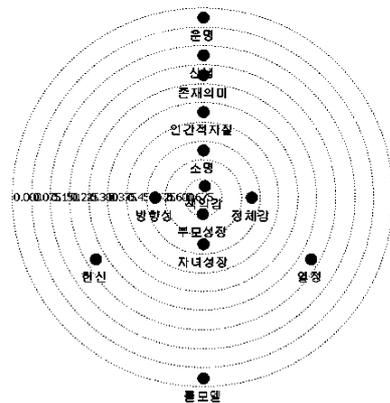


그림 6. 어머니 연결중앙성

그림 5의 아버지 연결중앙성을 살펴보면, 자녀성장을 중심으로 책임감과 신념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이는 아버지가 부모소명 개념에서 자녀의 성장을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는 부모소명에 대해 자녀의 성장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그림 6의 어머니 연결중앙성을 보면, 책임감을 중심으로 부모의 성장, 정체감, 자녀의 성장, 방향성 등의 순서로 나열되어 있다. 어머니는 부모소명에 대해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책임감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자녀의 성장과 자신의 성장을 이루고 자녀의 양육이 자신을 정의하는 정체감과 관련되어 있다고 인식한다. 그러므로 부모소명에 대해 자녀를 성장시켜야 하는 책임감을 느끼는 것 이상으로 자녀의 양육을 통해 어머니 본인의 성장과 존재의 의미 등에도 영향을 끼치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논 의

본 연구는 부모소명 개념에 있어 한국의 남성과 여성의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도출된 부모소명 개념에 대해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그들이 가진 부모소명의 개념을 시각화하여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소명 개념의 인식에 있어 어머니와 아버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 부모소명에 대해 더 많은 개념을 연결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책임감과 아버지로서 자질에 대해 생각한다면, 어머니는 여기에 더해 자신의 정체성과 자녀

와 함께 어머니로서 성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참가자들이 각 개념의 연관성을 평가한 원자료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부모소명에 있어 어머니 자신의 인간적 자질($r = -.572, p < .05$)과 성장($r = -2.052, p < .05$)에 더 많이 관련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는 앞선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전체 네트워크에서 부모성장이 중심어인 부모소명과 연결되고 연결중심성에서 인간적 자질이 아버지에 비해 훨씬 중앙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어머니는 부모소명을 자녀를 성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자신의 성장과 더 많이 연결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 자신이 양육 상황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각성과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가치와 나은 행동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경험하며(김수진 등, 2022) 이는 어머니에게서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선행연구인 부모소명의 한국적 의미와 개념 탐색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문화에서 새롭게 부모소명의 조건으로 제시하였던 ‘부모의 인품과 자질’의 주제어 중 하나인 인간적 자질은 부와 모 모두가 부모소명과 직접 연결되는 개념으로 인식한 반면, 다른 주제어인 롤모델에 대해서는 부모 모두 직접 연결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들이 롤모델을 성역할의 측면에서 평가한 것은 아닌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태도와 행동은 딸의 성역할 및 정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Bisin & Verdier, 2000) 아들이 있는 여성은 자신을 아들의 롤모델로서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운명 또한 부와 모 모두 부모소

명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않았는데, 이는 김수진 등(2022)의 선행연구에서 서구에서는 자녀와의 만남을 정확히 운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반면(Coulson, 2011a)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주저한다는 설명한 점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 부모들은 자녀를 낳게 된 것 혹은 부모가 되는 것이 '운명이다' 혹은 '운명적인 만남이었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자녀이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책임이 부과된 것이다' 등의 말로 운명이라는 주제의식을 표현하였다. 즉 자녀 자체보다는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사회적으로 내재화하고 이에 대해 순응하는 일련의 상황을 운명이라고 표현하며 운명을 책임감과 연결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부모 공통 네트워크(그림 1)에서 운명은 부모소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책임감과 헌신을 통해서 부모소명과 간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어, 부모들은 부모소명을 생각할 때 운명을 직접적으로 떠올리기 보다는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거나 헌신하는 것을 운명으로 수용하고 이를 수행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역시 새롭게 제시된 '의미 있는 성장'에서 자녀의 성장은 부와 모 모두 공통으로 부모소명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어 자녀를 성장시키는 것이 부모소명의 개념이라는 것에는 남녀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성장의 경우 아버지는 자녀의 성장과 연결하여 간접적으로 부모소명과 연결시켰고, 어머니의 경우 부모소명과 자신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성인의 발달 과업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Erikson, 1968), 본 연구의 결과는 특히 여

성의 경우 어머니가 되면서 개인적 발달과 성장의 기회를 경험한다는 선행연구들(노영주, 1996, 손승아 2000)과 일치하며 어머니에게는 자녀 양육의 경험이 더 개인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성장이 어머니의 연결중앙성에서는 자녀의 성장과 거의 비슷하지만 보다 중심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반면, 아버지의 연결중앙성에서는 자녀의 성장보다 중심에서 훨씬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아버지는 자녀를 성장을 도와야 하는 객체로 보지만, 어머니는 자녀의 성장과 본인의 성장을 분리하지 않고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본인의 성장을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양육 참여에는 특히 남성의 가치관이 영향을 미치는데(박선주, 강민주, 2017), 정체감이 확실하게 정립된 남성일수록 비록 양육이 여성의 일이라는 남성적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양육에 있어 자신의 일을 자신 있게 계획하고 지각한다고 한다(허선자, 1992). 반면, 자녀가 있는 여성은 독립적인 '나'보다는 자녀와 함께 존재하는 '나'가 강조되며(Lederman & Lederman, 1984) 특히, 한국 문화에서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성은 정형화된 엄마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구성한다(변윤연, 2009; 정경수 외, 2016). 또한 일반적으로 여성은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느끼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경험하며 자아존중감이 올라가는데(박성연 외, 1996), 이렇게 자기 생활에 만족할수록 부모로서의 능력도 더욱 크게 경험하게 된다(Hoffman, 1979). 이러한 여성의 특성은 본 연구 결과에서 어머니에게서만 연결된 정체감 그리고 부모의 성장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남성은 자신의 정체감을 확실히 확립하여야 더 좋은 양육을 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반면, 여성은 부모됨과 양육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기 성장을 이루면서 더 좋은 양육을 할 수 있다는 순환적 관점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명의 관점으로 부모됨과 자녀 양육을 조명하여 기존 소명 연구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소명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성장에 대한 많은 유용한 관점들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소명 연구에서 성차가 주목받지 못한 이유는 소명의 다양한 구성 개념을 비롯하여 직종에 따른 차이 등 일관된 결과 도출에 어려움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소명은 기존에 축적된 부모됨이나 자녀 양육 연구를 통해 부와 모의 분명한 역할이나 인식 차이를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이를 발견하였다. 부모소명의 남녀 인식 차이는 부모가 함께 자녀 양육을 하는 상황에서 서로의 행동에 이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동안의 자녀 양육 문제에 있어 남녀의 차이는 주로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자녀와 어머니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가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자녀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자신에게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실증적 연구들을 통해 아버지들의 양육 참여가 강조되어 왔다. 관련 연구에서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대한 평가는 주로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참여도나 시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아버지의 실제 양육 행동 자체보다는 어머니의 인식이나 만족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더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진경, 2014). 그러나 실제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맥락은 매우 복잡하

기 때문에(Henley & Pasley, 2005) 계량적으로 평가된 아버지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아버지 양육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행동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여주듯 자녀 성장의 과정 안에서 자신도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는 어머니의 경우 자녀 양육과 자신의 성장을 별개로 생각하는 배우자는 양육 활동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자녀 양육에 전념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양육에 대한 아버지 참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만족이 실제 아버지 양육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상황에서 (Easterbrooks et al., 2014) 부모소명에 대해 부와 모가 가진 인식 차이에 대한 이해는 부모로서 사는 자신의 삶에 있어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어떤 부분에 더 열정적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남녀의 차이를 설명하고 그 간극을 좁히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이후 부모소명의 실증적 연구에서 남녀 간의 행동 차이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코칭 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점검하는데 부모소명을 사용할 수 있다. 실제 부모 각자가 생각하는 부모의 역할이나 특히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자녀 양육에 대한 소명에 대한 인식은 부모가 자신의 부모됨을 스스로 정의하고 양육과정에서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보다 확고하게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양육과 관련된 부부 갈등에 대한 정보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진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과 실제 수행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가진 부모소명 개념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조운진(2016)은 부부의 공동양육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양육에 대한 동기, 책임감, 전략, 자녀와의 거리감 등에 있어 부부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국내외 연구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다양한 역할 차이와 여기서 오는 특성과 갈등이 있음을 밝혔다(권미경 외, 2015; 조운진, 임인혜, 2016; Nystrom & Ohrling, 2003; Offer & Schneider, 2011). 부모소명에 대한 인식 차이 역시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부부간의 차이와 갈등을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견해차를 이해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SNA를 통한 시각적 자료 제시는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 양육자인 상대방에 대한 보다 선명하고 직관적인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목표설정에서 명확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가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지지만,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연령이나 가족 구조,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소명에 대한 발달적인 관점과 함께 부모 자녀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고려해볼 때, 부모나 자녀의 연령, 가족 구조 등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소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Hall & Chandler, 2005). 본래 소명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고려해볼 때, 부모소명에 대한 개념이 가족 구조나 주기에 맞춰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와 모의 인식 차이가 연령이나 가족 구조에서도 나타나는지에 대해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대규모 부모 샘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도 제한적으로 수집되었다. 부모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예: 직업의 유무, 자녀의 나이, 육아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 등)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 및 자기 성장에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어느 정도의 상대적 중요성을 갖는지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더욱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규모 샘플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소명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소명을 인식(perceiving)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명에 따라 사는 것(living)을 구분하여 각각의 영향을 검증하고 있다(Duffy et al., 2012).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부모소명 개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으나 소명 실행 수준에서 부와 모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에 대한 태도(일 지향성)를 직업, 경력, 소명으로 구분하는 것과 같이 부모소명 역시 부모됨 혹은 부모 역할에 대한 다양한 태도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일 지향성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과 같이 부모됨에 대한 태도 혹은 부모 역할 지향성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구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단순히 부모소명을 갖는 것이 올바른 부모로서의 태도라는 식의 단순화된 설명을 지양하고 부모의 삶과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시은 (2017). 청년이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부모에 대한 친밀감과 부모의 진로기대 부담의 매개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미경, 방경숙, 김형경 (2015).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생아 돌보기 지식과 자신감 비교.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8(1), 11-18.
- 고용노동부 (2021). 20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937
- 김낙홍 (2010). 바람직한 아버지의 의미와 사회역할에 대한 고찰. 제2차 육아선진화포럼: 바람직한 부모의 조건은 무엇이며,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육아정책연구소.
- 김미경, 나유미, 이혜정 (2016) 부모교육. 경기: 양성원.
- 김성희, 장로사. (2010). 사회 연결망 분석 연구동향 및 정보학 분야에서의 활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7(4), 71-87.
- 김소라, 문승태 (2017).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에 있어서의 부모의 역할. 진로교육연구, 30(4), 27-48.
- 김수진, 기쁘다, 이수란 (2022). 부모소명의 한국적 의미와 개념 탐색. 인문논총, 58, 143-172.
- 김용학 (2007). 사회연결망이론: 개정판. 박영사.
- 김진경 (2014). 부모기 전이에 남편의 양육참여와 부인의 결혼만족도간 관계 - 자기효능감과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아시아아동복지연구, 12(1), 1-17.
- 나중혜 (2005).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는 새로운 부모역할 제안: 변화하는 부모역할 개념과 수행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4(3), 411-421.
- 노영주 (1996). 여성의 경험으로서의 어머니됨.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 35-55.
- 문무경, 조숙인, 김정민 (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6-21.
- 박선주, 강민주 (2017).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11(3), 87-111.
- 박성연, 도현심, 정승원 (1996). 부모-자녀관계: 생태학적 접근. 학지사.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3), 37-59.
- 변윤언 (2009). 한국엄마의 청소년기 자녀교육에 관한 경험담론 분석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1(4), 51-72.
- 손승아 (2000). 첫 어머니됨의 체험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수미 (2013).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와 자녀양육시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계숙, 정현숙 (2002). 부모됨의 의미와 동기에 대한 청년의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3), 39-47.
- 유안진, 김연진 (1997). 부모교육. 동문사.
- 윤미라 (2006). 고등학생의 결혼관 및 자녀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심리적가정환경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은기수 (2004). 한국인의 가족가치: 5 개국 비교연구. 한국학 (구 정신문화연구), 27(3),

- 137-182.
- 이선아 (2009). 감성적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위한 스토리텔링: 스키마 부합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란, 배유진, 양수진, 기쁘다 (2021).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4(4), 153-182.
- 이승미 (1997). 가족 공유시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준기, 하민수 (2012). 언어 네트워크 분석법을 통한 중학교 과학영재들의 사실, 가설, 이론, 법칙과 과학적인 것의 의미에 대한 인식 조사.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2(5), 823-840.
- 전진태, 박건우, 김영안, 이상훈. (2010). 사회 연결망 분석 방법에 기반을 둔 지휘통제 체계 시각화.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37(1C), 94-98.
- 정경수, 임부연, 김경애 (2016). 엄마됨을 경험한 유아교사들의 이야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6), 619-643.
- 정옥분, 김광웅, 김동춘, 유가효, 윤종희, 정현희, 최영희 (1997). 전통 '효'개념에서 본 부모역할 인식과 자녀양육행동. 아동학회지, 18(1), 81-107.
- 정은경 (2016). 코칭에 대한 일반인과 코칭전문가의 인식: 상담에 대한 인식과의 비교. 사회과학연구, 55(2), 357-379.
- 정은경, 손영우 (2011). 진보와 보수의 도덕적 가치 판단의 차이: 간통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727-741.
- 정은경, 정혜승, 손영우 (2011). 진보와 보수의 도덕적 가치 판단의 차이: 용산재개발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4), 93-105.
- 조운진 (2017).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부모 역할신념과 어머니 문지기역할, 부부 공동양육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운진, 임인혜 (2016). 한국판 어머니 문지기 역할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육아지원연구, 11(2), 33-57.
- 조지선, 이 주, 홍아성, 손영우 (2013). 이상적 공인에 대한 기대와 공인에 대한 실제 평가: 정치인과 연예인에 대한 인지적 표상을 중심으로. 감성과학, 16(2), 249-264.
- 통계청 (2019).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CC2019D001&vw_cd=MT_ZTITLE&dist_id=B_001_004&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 통계청 (2020). 가사분담 실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123R&vw_cd=MT_ZTITLE&dist_id=101_D2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 한경혜 (1995). 중년기 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 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 한국가족학연구회 가정복지 세미나자료집, 35-80.
- 한병래, 방은령 (2017). 청소년이 지각하는 자아탄력성, 부모역할책임의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정건강성의 매개효과를 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4(8), 273-304.
- 허명희 (2012). 사회네트워크 분석 입문. 자유아카데미.
- 허선자 (1992). 아버지의 역할지각 및 양육참여

-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현정환 (2007).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최근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보육학회지*, 7(1), 95-110.
- 황신웅 (2005). 모바일 기기 구매 의사결정에 관한 멘탈 모델의 추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세희, 조기현, 이현정, 손수경, 김효진, 윤미리, 강윤경 (2019).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연구동향. *한국청소년연구*, 30(2), 273-301.
- Afiouni, F., & Karam, C. M. (2019). The formative role of contextual hardships in women's career call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14, 69-87.
- Baumeister, R. F. (1991). *Meanings of life*. New York, NY: Guilford.
- Bellah, R. N., Madsen, R., Sullivan, W., Swidler, A., & Tipton, S. M. (1985). *Habits of the heart: middle America observed*. London: Hutchinson.
- Bisin, A. & T. Verdier (2000), "Beyond the melting pot: Cultural transmission, marriage, and the evolution of ethnic and religious trait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5 (3), 955 ~ 988.
- Bunderson, J. S., & Thompson, J. A. (2009). The call of the wild: Zookeepers, callings, and the double-edged sword of deeply meaningful work.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54(1), 32-57.
- Capuozzo, R. M., Sheppard, B. S., & Uba, G. (2010). Boot camp for new dads: The importance of infant-father attachment. *Young Children*, 65(3), 24.
- Carr, D., & Springer, K. (2010). Advances in families and health research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 743-781.
- Cooke, N. M., Durso, F. T., & Schvaneveldt, R. W. (1986). Recall and measures of memory organiz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12(4), 538.
- Coulson, J., Oades, L., & Stoyles, G. (2012a). Parent's conception and experience of calling in child rearing: A qualitative analysis.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52(2), 222-247.
- Coulson, J. C., Oades, L. G., & Stoyles, G. J. (2012b). Parents' subjective sense of calling in childrearing: Measurement, development and initial finding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7(2), 83-94.
- Dik, B. J., & Duffy, R. D. (2009). Calling and vocation at work: Definitions and prospects for research and practi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7(3), 424-450.
- Dobrow, S. R. (2006). *Having a calling: A longitudinal study of young musicians*. Harvard University.
- Dobrow, S. R., & Tosti-Kharas, J. (2011). Calling: The development of a scale measure. *Personnel psychology*, 64(4), 1001-1049.
- Dollahite D. C., Hawkins, A.J., & Brotherson, S. E. (1997). Fatherwork: A conceptualethic of fathering as generative work. In Hawkins, A. J. & Aollahite, D. C. (Eds.), *Generative fathering: Beyond deficit perspectives* (183-199).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
- Duffy, R. D., Bott, E. M., Allan, B. A., Torrey,

- C. L., & Dik, B. J. (2012). Perceiving a calling, living a calling, and job satisfaction: testing a moderated, multiple mediator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9*(1), 50.
- Duffy, R. D., & Dik, B. J. (2013). Research on calling: What have we learned and where are we go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3*(3), 428-436.
- Easterbrooks, M. A., Raskin, M., & McBrien, S. F. (2014). Father involvement and toddlers' behavioral regulation: Evidence from a high social risk sample. *Fathering, 12*(1), 71-93.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o. 7). WW Norton & company.
- Finley, G. E., Mira, S. D., & Schwartz, S. J. (2008). Perceived paternal and maternal involvement: Factor structures, mean differences, and parental roles. *Fathering, 6*(1), 62-81.
- Goldberg, J. S. (2014). Identity and involvement among resident nonresident fathers. *Journal of Family Issues, 48*(12), 1167-1168.
- Haddock, S. A., & Bowling, S. W. (2002). Therapists' approaches to the normative challenges of dual-earner couples. *Journal of Feminist Family Therapy, 13*, 91-120.
- Hagmaier, T., & Abele A. E. (2012). The multidimensionality of calling: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a bicultural per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1*, 39-51.
- Hall, D. T., & Chandler, D. E. (2005). Psychological success: When the career is a calling.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Behavior, 26*(2), 155-176.
- Henley, K., & Pasley, K. (2005). Conditions affecting the association between father identity and father involvement. *Fathering, 3*, 59-80.
- Hoffman, L. W. (1979). Maternal employment: 1979. *American Psychologist, 34*(10), 859.
- Larson, R. W., Gillman, S. A., & Richards, M. H. (1997). Divergent experiences of family leisure: Fathers, mothers, and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9*(1), 78-97.
- Lazar, A., Davidovitch, N., & Coren, G. (2016). Gender Differences in Calling and Work Spirituality among Israeli Academic Faculty. *Journal of International Education Research, 12*(3), 87-98.
- Lederman, R. P., & Lederman, E. (1984). Prediction of postpartum mothering concern from prenatal adaptation scaled. *Paper presented at the seventeenth International Congress on Psychosomatic Obstetrics and Gynecology*. 11-15.
- Nystrom, K., & Ohrling, K. (2003). Parenthood experiences during the child's first year: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6*(3), 319-330.
- Offer, S., & Schneider, B. (2011). Revisiting the gender gap in time-use patterns: Multitasking and well-being among mothers and fathers in dual-earner famil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6*(7), 809-833.
- Palkovitz, R. (1997). Reconstructing "involvement": Expanding conceptualizations of men's caring in contemporary families. In A. J. Hawkins & D. C. Dollahite (Eds.), *Current issues in the*

- family series, Vol. 3. Generative fathering: Beyond deficit perspectives* (200-216). Thousand Oaks, CA: Sage.
- Parke, R. D. (2002). Fathers and families.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3. Status and social conditions of parenting* (2nd ed., 27-73). Mahwah, NJ; Lawrence Erlbaum.
- Pedersen, D. E. (2012). The good mother, the good father, and the good parent: Gendered definitions of parenting. *Journal of feminist family therapy, 24*(3), 230-246.
- Phillips, S. L. (2009). *Predictors of vocational calling in Christian college student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zusa Pacific University.
- Pleck, J. H., & Masciadrelli, B. P. (2004). Paternal involvement by US residential fathers: Levels, sources, and consequences. In M. E. Lamb (Ed.) *the role of father in child development* (4th ed., pp. 222-271). New York: Wiley.
- Rennie, D. L. (2000). Grounded theory methodology as methodical hermeneutics: Reconciling realism and relativism. *Theory & Psychology, 10*(4), 481-502.
- Seligman, M. E. P. (2002).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Free Press.
- Scott, J., & Carrington, P. J. (2011). *The SAGE handbook of social network analysis*. SAGE publications.
- Song, E. J. (2011). Changes in parental time spent with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y Society, 34*(2), 45-64.
- Super, D. E. (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3), 282-298.
- Wrzesniewski, A., McCauley, C., Rozin, P., & Schwartz, B. (1997). Jobs, careers, and callings: People's relations to their work.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1), 21-33.

1차 원고접수 : 2022. 11. 20.

1차 원고접수 : 2022. 12. 19.

최종 게재결정 : 2022. 12. 26.

The gender difference in concept of calling in childrearing: Visual Comparison through Social Network Analysis

Su Jin Kim	Young Woo Shon	Suran Lee
Yonsei University		Seoul Cyber University
Psychological Science	Department of Psychology	Military & Police Counseling
Innovation Institu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in conceptualizing a calling in childrearing through social network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mothers showed significantly larger networks and higher density than fathers did, indicating that mothers, more than fathers do, experience parenting and child-rearing based more on a concept of calling in childrearing. Parents directly linked responsibility, children's growth, direction, commitment, and parental character to a calling in childrearing. In addition, mothers also linked a sense of identity and parental growth to it. In the case of fathers, only four concepts were directly connected with a calling in childrearing. This shows that mothers, in comparison to fathers, connect essential self-concepts, such as identity as a parent and themes of growth, to a calling in childrearing. In centrality, similar concepts also were evaluated as important. The common parental closeness centrality is composed of responsibility, child growth, direction, and belief starting from the center. In the case of fathers, child growth, responsibility, and belief were evaluated in order, and in the case of mothers, responsibility, parental growth, and identity were evaluated as relatively important concepts.

Key words : calling, calling in childrearing, gender differences, social network analysis